

화엄·법화회·무소속 VS 무량·무치회·백상도량 총무원장 선거, 경선 체제로 전환

안개 속 정국이었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경선 체제로 굳어졌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불교광장과 이에 대적에 서 있는 舊 무량·무치회·백상도량(舊 보림회)의 대결구도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것은 舊 무량·무치회·백상도량 3개 종책모임이다. 이들은 총무원장 후보로 前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추대했다. 보선 스님은 이를 수락하고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보선 스님 인터뷰 2면)

'연임'에 걸린 불교광장

한달 여 전 상황은 전혀 달랐다. 화엄·법화회와 무량회, 무소속이 연대한 불교광장이 출범하고 추대위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될 듯 보였다. 하지만 곧 약재가 따랐다. 자승 스님의 연임을 놓고 불교광장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불교광장 대변인을 맡고 있던 무량회 측 장명 스님은 '자승 스님의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며 광장을 탈퇴했으며, 전국 수좌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촉구도 이어졌다. 특히 수좌회는 자승 스님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묵언정진을 29일부터 조계사 전통동 연구소에서 들어갔으며, 24일에는 연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량회도 8월 26일까지 불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불교광장에서 탈퇴했다. 여기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교광장 추대위원회의 교역직 참여 자제 권고도 단일 후보 추대에 암초가 됐다.

결국 불교광장 추대위는 26일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불교광장은 9월 2일 대구 동화사에서 향후 방향과 후보 추대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자승 스님 출마 여부 관심사

불교광장이 추대하는 후보자는 현재(8월 30일)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교계 인사는 자승 스님의 연임을 위한 출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승 스님이 지난해 백양사 도박사건부터 3차례에 걸쳐 재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답변으로 거취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자승 스님은 "지난 4년간은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선거는 화엄·법화회·무소속의 불교광장과 舊 무량·무치회·백상도량의 3자 연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다수의 종회의원과 18곳 가량의 교구본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교광장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자승 스님에 대해 수좌회가 대표로 나서서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선거가 본격화되면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미지수이다.

어법하고 공정한 선거 관련

적지 않은 중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그 결과를 떠나 흠결

보선 스님 공식 출마 선언

3개 종책 모임 공조 추대
불교광장 연대 사실상 분열
수좌회 '연임 저지' 천명해
중도들 흠결없는 선거 염원

없는 후보가 어법하고 공정하게 선출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백적간두에 선 한국불교가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퇴후 스님은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아닌 중도로서의 바람은 조계종을 명예롭게 이끌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한다"며 "누굴 뽑느냐가 관련된 정치공학적 선거가 아닌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어법한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선거가 돼야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총무원장 선거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안된다"며 "종단 행정 수반에 걸 맞는 자질과 수행력을 겸비한 인물이 조계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전국 수좌회 조계사서 묵언정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재임 저지를 위해 총무원 청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묵언 정진을 예고했던 전국 선원수좌회가 8월 29일 정진에 들어갔다. 장소는 총무원과 조계사의 협조로 조계사 신도회관 옆 전통동 연구소 '가피'에서 진행된다. 매일 동참 수좌 20명은 교대로 오전 4~5시, 8~11시, 오후 1~5시, 7~9시까지 네 차례 정진하며 기한은 자승 스님의 불출마선언이 나올 때까지다. 사진은 정진에 동참한 수좌들이 조계사에서 고불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종헌·종법 벗어난 행위 엄중 조치"

조계종 호법부, 28일 선거관련 담화문 발표

선관위 비방 자제 권고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호법부가 종헌 종법의 질서를 벗어난 주장과 행동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

호법부는 8월 28일 호법부장 정안 스님의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향후 종단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인단, 그리고 중도 모두가 종헌과 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4대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하여 종헌종법에서 벗어난 어

한 주장이나 행동도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중도 모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종단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호법부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담화문에서 공지했으며,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이하 중앙선관위)는 8월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종단 내에서는 제34대 총무원장 선

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표명되고 교계언론을 비롯한 일반 언론에도 기사화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공고 및 후보 등록'을 하기 전으로 현 시점에서 종단 내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출마 여부에 대해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왜곡된 선거 문화로 인해 각 종 선거 전후로 많은 내용과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며 "금번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과거의 답습이 아닌 미래를 위한 변화의 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중도들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선거 절차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956호 INDEX

시방세계 5

대만 불광산사 승보공양 현장



종합 2·3

대장경 판각지 논쟁 '재촉발'

조계종 첫 호주 방문 행사

정진 60주년 국제 포럼 개최

마음·명상 27

'명상 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 20

성철 스님 열반 20주년 전시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추대

백양사 8월 30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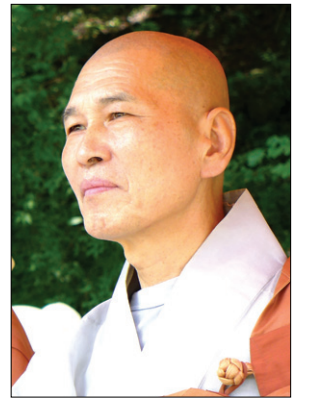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사진)이 고불총림 방장에 추대됐다. 이에 따라 백양사는 전 방장 수산 스님의 열반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신임 방장을 모시게 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8월 30일 산중총회를 열고 지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총 구성원 158명 가운데 93명이 참석해 성원했다.

이에 따라 지선 스님은 11월에 열릴 조계종 중앙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정식으로 방장 소임을 맡는다.

백양사의 큰 어른인 지선 스님은 1946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으며, 1961년 16세의 나이로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67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하고, 1972년 서운 스님으로부터 '학봉'이라는 법호를 받으며 법제자가 됐다.

이후 지선 스님은 제주 관음사와



전남 백양사 주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총림 유나 소임을 맡아 수좌들을 지도해왔다.

한편, 총림의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20만여 이상을 성만한 스님으로 총림을 대표하는 어른이 계 수지하고, 1972년 서운 스님으로부터 '학봉'이라는 법호를 받으며,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제22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나로부터의 시작

생활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교육기간 2013년 9월 28일(토)~12월 14일(토)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4:30~8:10 한마음선원 문의

TEL (031)471-6926~7 (매주 월요일 휴무)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그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